



Ⅱ. 부문별 사업실적



한국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경제단체

II. 부문별 사업실적

1. 상공 진흥 및 회원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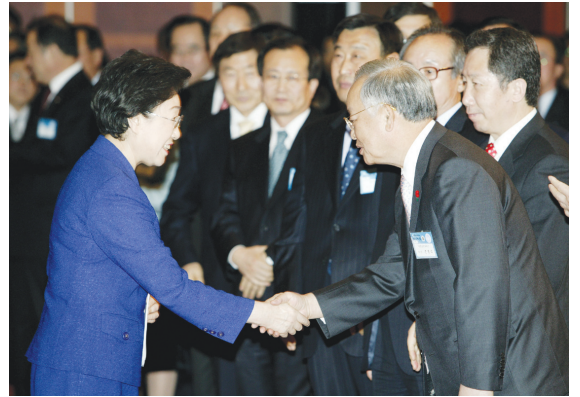
1-1. 2007년 신년인사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4일 COEX 그랜드볼룸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관계, 경제계, 사회각계의 대표와 주한 외교사절, 외국기업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인사를 나누고,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우리 경제의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신감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 이르러 선진국 문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던 지난날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하며, 정부는 각종 규제를 좀 더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보호,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명숙 국무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는 정부나 기업이 각자 나서서는 해결될 수 없고 정부와 기업, 대학이 함께 고민할 때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도 좋지만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해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인 여러분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혁신 중소기업 수를 늘리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담보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조달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인들도 혁신의지와 실천으로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정계인사와 전윤철 감사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종갑 산자부 차관 등 정부 각료,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구택 (주)포스코 회장, 최태원 SK(주) 회장, 이운우 삼성전자(주)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주) 부회장, 구본준 (주)LG상사 부회장 등 재계인사와 주한외교단장인 알프레도 F. 운고 주한 엘살바도르대사, 워윅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국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2007년 신년인사회 (1/4)

1-2. 제 34회 상공의 날 기념식

산업 현장에서 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내외 상공인을 격려하고, 상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제34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3월 2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 모범상공인, 모범관리자 그리고 재외동포 상공인, 수상업체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 제34회 상공의날 기념식 (3/21)

상공인 포상과 관련해서는 모범상공인, 모범관리자 및 사원, 재외 및 교포 상공인, 주한 외국상공인 등 4개 분야에서 총 206명이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김윤 (주)삼양사 회장과 이순중 (주)한화 부회장이 받았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

지화를 추진하고, 해외투자·인프라·산업협력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 하겠으며, 인력양성, IT활용 등을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아웃소싱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상공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와 도전의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영역과 수익모델을 찾아 나서야 하며, 근로자들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투쟁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앞서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어야 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상식과 함께 개최된 기업경영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수상자를 대표해 은탑산업훈장 수상자인 유영훈 대덕GDS(주) 대표이사와 차중근 (주)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자사의 경영사례를 발표했다.

▶ 수상업체 현황

- 금탑산업훈장 : 김 윤 (주)삼양사 회장, 이순중 (주)한화 부회장
- 은탑산업훈장 : 유영훈 대덕GDS(주) 대표이사, 차중근 (주)유한양행 대표이사
- 동탑산업훈장 : 박인주 (주)제니엘 대표이사, 신영재 (주)롯데기공 대표이사
- 철탑산업훈장 : 류종우 (주)삼보판지 대표이사
- 석탑산업훈장 : 나주영 (주)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 이택우 진양공업(주) 대표이사
- 산업포장 : 김상연 (주)피제이전자 회장, 구연찬 장암엘에스(주) 대표이사, 최규식 (주)불로 상무이사, 강민구 약세스 그룹 대표이사, 주봉노 M.Z ESTABLISHMENT General Manager, 디터 브링크만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 대통령 표창 : 정병조 (주)삼동산업 대표이사, 류영동 (주)안동간고등어 대표이사, 신창훈 (주)SWC 대표이사, 구재홍 대신정공(주) 대표이사, 이태화 (주)민다무역 대표이사, 이종오 청수정밀(주) 대표이사, 박영준 신기화학공업(주) 대표이사, 박용성 삼우금속공업(주) 전무이사, 김수영 한국후지제록스(주) 상무이사, 김창일 미주제강(주) 전무이사, 김장경 두산중공업(주) 대만지사 지사장

1-3. 제 32회 최고경영자대학

‘변화와 혁신의 CEO,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를 주제로 7월 25일부터 3박 4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2회 최고경영자대학에는 이순중 한화 부회장, 조국필 쌍용 대표이사 등 370여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해 급변하는 세계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기업인 상호간 친분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각 주제별 강연에서는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박해춘 우리은행 행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국내 최고의 연사들이 나서 명쾌한 미래전망과 불확실성 시대의 기업인의 자세, 최근의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한국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강연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경제가 사회를 주도하고, 정치는 경제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송 교수는 “1987년 이후엔 경제가 정치와 사회를 이끄는 시대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기업이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시민단체는 80km, 노동조



▲ 제32회 최고경영자대학 (7/26)

II. 부문별 사업실적

합은 30km, 정부는 25km, 학교는 10km로 달리는 등 부문간 속도 차이가 존재하는 ‘갭 소사이 어티(Gap Society)’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한국은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국가였으나 그 성공을 이끈 박정희식 체제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강연주제 및 연사현황

구 분	강연 주제	연 사
기조강연	변화와 혁신의 CEO,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글로벌경영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SK의 글로벌 경영전략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한국경제	샌드위치 한국경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소장
국제정세	전환기 세계속의 한국 : 도전과 과제	한승주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사회	한국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송호근 서울대 교수
부인강좌	성격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윤태익 인하대 겸임교수
자산관리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리더십	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십	박해춘 우리은행 은행장
자기관리	끌리는 CEO는 1%가 다르다	이민규 아주대 심리학교수
창조경영	창조경영	이성용 베인&컴퍼니 아태지역 총괄대표
부인강좌	젊고 신수 흰하게 사는 방법	여 에스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초빙교수
특별강연	FTA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조직관리	여성을 알아야 기업이 발전한다	김미경 더블유인사이즈 대표

1-4. 제14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11월 28일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후원아래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4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두산인프라코어(주)와 호성케멕스(주)가 각각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상인 금상에는 (주)우리은행을 비롯한 4개 기업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인 우수상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6개 기업이 수상하였다.

두산인프라코어(주)는 대우중공업 시절 대우사태로 인해 경영환경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5년 4월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건설기계업계 Global Top 7으로 성장하기까지 적극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착실히 쌓아온 점이 인정되어 대기업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후 별도로 마련된 발표회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Global Top 5로 성장하겠다는 비전과 2010년 매출 10조, 영업 이익률 10%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전략

과제인 Global Leadership을 바탕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 선진수준의 품질, 지속적 경영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부문 대통령상 수상기업인 호성케멕스(주)는 2008년이면 창사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량 중소기업으로 기존의 석유화학, 정밀화학, 폴리우레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소재사업, 고기능 폴리우레탄 사업, 바이오메디칼 사업, 전자케미칼 사업 등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다. 또한 생산성 혁신, 관리시스템 혁신, 조직문화 혁신 등 전사적 혁신운동을 펼친 결과, 2003년 이후 급격히 떨어진 수익성을 회복해 2007년 매출액 1,400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부채비율 38%, 차입금 의존도 5%를 달성했고, 2005년까지 250억원 내외였던 기업가치도 4배 수준으로 상승시키면서 이날의 영예를 안았다.



▲ 제14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11/28)

④ 수상업체 현황

구 분	대기업 부문	중소기업 부문
대 상	두산인프라코어(주)	호성케멕스(주)
금 상	(주)우리은행,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주)현대홈쇼핑,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	-
우수상	현대화재해상보험(주), (주)광주은행, (주)삼구개발	우진전자유한공사, (주)파워넷, 아토정보기술(주)

1-5. CEO 조찬간담회

바쁜 경영활동 속에서도 최신의 경영기법과 시장정보,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2007년도에도 15회의 CEO 조찬간담회를 마련하였고, 3천여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각 분야별로 초빙된 연사들의 강연을 경청하였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경제 현안과 향후 비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업인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특별강연회(10/29)에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의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고임금과 비협력적인 노사문화, 비싼 집값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의 전반적 환경이 친기업적이 아니기 때문”이라

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 연 6~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7%대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질서의 확립, 노사문화의 변화, 인재양성,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며, 첨단 지식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이 균형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정부각료를 초빙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이 경영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정택 KDI 원장, 이영선 한국경제학회 회장, 정덕구 고려대 교수,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각계 유명 인사들을 연사로 모시고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과 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경영정보를 얻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우리산업의 현황 및 주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조찬간담회(3/8)에서 향후 산업정책 방향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시장개방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차세대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15개 전략기술 분야별로 패키징 지원을 실시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1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MW의 경쟁력과 글로벌리더십’을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9/19)에서는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가 초청연사로 나서 “BMW는 회사의 철학과 직원 개개인의 인생이 함께 녹아있는 조직”이라며 BMW의 성공 요인은 사람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BMW 조직내에는 같은 가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이 수평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BMW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프리미엄 부문 집중 ▲브랜드 매니지먼트 역량 ▲매력적인 제품 생산 ▲고객·시장중심 운영 ▲변화와 혁신 등을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 소개했다.



- ① 김성호 법무부 장관(2/1)
- ②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2/22)
- ③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3/8)
- ④ 이상수 노동부 장관(3/15)
- ⑤ 이명선 한국경제학회 회장(4/10)
- ⑥ 이경태 KIEP 원장(4/19)
- ⑦ 이재정 통일부 장관(4/25)
- ⑧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5/16)
- ⑨ 정덕구 고려대 교수(5/23)
- ⑩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6/21)
- ⑪ 현정택 KDI 원장(6/27)
- ⑫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9/4)
- ⑬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9/19)
- ⑭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10/29)
- ⑮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12/6)

1-6. 부문별 위원회

(1) 조세금융위원회

조세금융위원회는 지난해의 주요 활동목표를 회원사의 세계금융상 애로해소를 위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는데 두었다. 이의 일환으로 경제부처 책임자와 금융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관련 조세개혁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수차례의 세법 건의안 검토회의를 거쳐 깊이있는 세계개편안을 마련, 건의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위원회를 조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분리,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07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 (7/13)

▲ 남북경협민간협의회 창립총회 (11/5)

(2) 노사인력위원회

지난 1년 동안 6차례의 노사인력위원회 본회의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상호간에 노사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는 한편,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현안을 함께 토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 입장이 반영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정부당국에 수시로 건의하였고 비정규직법 후속조치, 노동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3) 환경안전위원회

국내외 환경·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기업 경영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환경부와 노동부의 환

경·안전 정책을 청취하고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환경부와 정기적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현행 환경관련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건의하였다.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는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단에서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단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업계 의견을 상당부분(77건 건의 중 66건 수용) 반영시켰다.

(4) 유통물류위원회

유통물류위원회는 유통산업 발전, 교통정책, 산업물류 혁신대책에 대한 업계대표기구로 위원 및 실무위원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모여 유통물류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유통산업 정책방향,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물류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김호원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강영일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유통물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5) 남북경협위원회

경제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남북경협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의견을 건의하는 한편, 새로운 정부정책을 기업에 적시에 전달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간 협력 분위기가 고조된 시기로, 총리급 회담,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등의 각종 회담 개최시 경협사업 및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북한 자원 공동 개발 및 SOC 현대화 사업방안, 기업의 대북투자 관련애로 및 개선방안 등의 업계의견을 전달해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6) 국제위원회

국제 통상현안을 파악하고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위원회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 케네쓰 브라운 월스트리트 저널 금융·투자부문 부편집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통상환경의 변화 및 국내외 주요경제 이슈에 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 반독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삼정 KPMG와 공동으로 러시아 및 CIS 자원개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다.

(7) 중소기업위원회

날로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금, 세제, 인력 등 부문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아울러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한미 FTA 타결과 중소기업의 과제' 등의 주제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II. 부문별 사업실적

(8) 서울경제위원회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시내 25개 상공회 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명실상부한 대표모임으로서 서울지역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김창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조정호 서울지방노동청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정순구 서울시 산업국장 등을 초청해 분야별 서울지역 정책방향을 듣고상공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 윤리경영위원회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윤리경영의 정착을 통한 기업의 신뢰향상과 경쟁력 제고, 친기업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하였다. 게오르그 켈 UN본부 이사를 초청하여 'UN 글로벌콤팩트 최근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UN 글로벌콤팩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yota 사례로 본 기업경쟁력과 윤리경영'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새로운 경영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창조경영, 감성경영, 윤리경영 등 신경영 트렌드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회원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② 위원회 개최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합 계	
	개최횟수	참석인원	개최횟수	참석인원	개최횟수	참석인원
조세금융위원회	6	355	6	380	12	735
노사인력위원회	2	15	4	34	6	49
환경안전위원회	10	240	7	109	17	349
유통물류위원회	2	170	2	23	4	193
남북경협위원회	2	94	1	12	3	106
국제위원회	4	402	-	-	4	402
중소기업위원회	7	161	-	-	7	161
서울경제위원회	5	529	-	-	5	529
윤리경영위원회	4	209	1	12	5	221
합 계	42	2,175	21	570	63	2,745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한층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와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사·연구·건의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민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2-1.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 기업의 금융환경 개선, 기업투자 촉진, 친기업적 조세환경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업계의견을 적극 제시하였고, 경제상황과 정부의 부문별 경제정책을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또한 환율과 금리, 유가 등 주요 경제불안요인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원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주었다.

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파악, 애로사항을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 유동성 조절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과제인 기업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등에 직접 전달하였다. 아울러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요인, 외국과 비교한 국내투자 여건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친기업적 조세환경 구축을 위해 법인세, 연구개발 및 투자관련 세제, 상속세제의 90개 개선 과제를 정책당국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대기업의 R&D 고정비율공제 도입,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 ▲ 샌드위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세미나 (4/20)
-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3/7)

II. 부문별 사업실적

제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 양도소득세제 개선, 전매제도 완화 등을 정책당국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시켰다. 또한 국회와 정책당국에 수시로 지방기업의 애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2-2.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선진화 도모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창립, 산업별 제도개선 건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지적재산권 및 산업보안관련 대책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산업화 수준이 낮은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8월말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고용과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가 향후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 운용방향에 업계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썼고, 산업 분야별로 산재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 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기업경기전망과 주요 업종동향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관광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



▲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창립총회 (8/30)

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원천기술 확보, 산학협력 기반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 공장·제품 인허가 절차와 기술평가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31건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내 1,000대 기업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기밀유출 대응실태를 조사하여 산업기밀 보호의 중요성과 기밀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2-3. 기업관련 법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전반에 산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주요 법률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 규제개혁 대표창구로서 경제 5단체 공동으로 2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는 한편, 재정부에는 73건에 달하는 별도의 개선과제를 제출하여 '제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는 등 총 40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신고센터와 「지방기업애로 현장방문 공동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 해법'이라는 주제로 한국규제학회,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업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시켰으며, 기업의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제 등 선진국형의 방어 수단을 상법에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거래분야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 강화방침의 철회를 건의하여 개정안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산업의 융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금융과 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소비자기본법 등 각종 소비자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제도 도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권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도 재정신청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관련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재정신청 범위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률안 전체를 검토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은 입법 유보하고 기업활동에 도움되는 내용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정당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할 10대 부문 33대 과제를 정리해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규제개혁 대토론회 (8/28)



▲
▲
제2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12/21)

▲
▲
제6회 선생님을 위한
경제와 문화체험 (1/23)

▲
제3회 전국 지자체 기
업사랑 우수사례 발표
대회 및 시상식 (12/13)

2-4. 윤리경영 및 기업사랑운동 전개

국내 경제계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과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여 제공하였으며, 학계와 기업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윤리경영 자문단도 발족시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 광주, 안산, 구미 등 전국 10개 지방상의에서 기업 CEO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의 윤리경영 모범사례와 윤리경영 추진전략 등을 소개했다.

국민들에게 우리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노력을 제대로 알리고 기업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윤리경영 딜레마 사례와 해법 등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업체 임직원들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고민을 문답으로 풀어 정리한 '윤리경영 100문 100답'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지난 2004년 경제4단체와 산업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사랑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기업사랑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제3회 전국 지자체 기업사랑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은 경기도가, 우수상은 남양주시와 전라북도, 창원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개최한 '제2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는 남중수 KT 대표이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유한킴벌리, 동부화재 등이 산자부장관상과 대한상의 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경영철학과 성공·실패과정 등을 담은 만화CEO 열전을 제작,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였고 이병철, 정주영, 박두병, 구인회 회장의 일대기는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초중고교에 10만부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2-5. 고용확대와 산업평화 정착 유도

'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07년 노동문제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에 관한 경영계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관련 법률 등에 대한 업계의견을 건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확대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밖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기업의 신축적인 인력운용을 제약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저해하는 무리한 보호입법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단위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노사발전재단이 대한상의, 경총, 한국노총 등의 참여 속에 '07년 4월 출범하였으며, 수원(경기), 청주(충북), 포항, 이천, 천안 등의 지역 상공회의소는 해당지역 노사발전협의회에 참여해 지역의 신뢰구축과 노사 파트너십 강화, 지역 수요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임금체계개선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산업계 현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노동시장 여건 조성 및 노사관계 안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6. FTA 체결지원 및 남북경협 촉진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타결을 전후로 대한상의는 전국 70개 지방상의와 협력하여 민간 차원의 효율적인 FTA 대응체계 구축과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타결 및 국회비준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

협상타결 직전인 3월말에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한미 FTA 포럼' 위원단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협상타결 직후인 4월에는 한미 FTA 협상타결 결과를 설명하는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지역별 영향분석 세미나', 'FTA 활용전략 설명회'도 총 40회를 개최하였다. 이밖에 한미 FTA 포럼에서



▲ 제7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4/2)

II. 부문별 사업실적



▲ 한·EU FTA 협상단 초청 환영 리셉션 (10/17)

▲ 남북경협 세미나 (6/19)

는 지역별로 FTA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FTA 지원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5월부터는 FTA 협상타결이 조속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 FTA 국회비준을 위한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업계·학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7만 3천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EU 등 지역별 FTA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의견을 조사해 발표하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조성된 남북의 화해·교류 분위기를 살려 기업차원에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애로와 정책적인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남북경협 및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기업의 대북투자 관련 애로 등에 대한 기업인 의견을 조사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정책책임자를 초청해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민간차원에서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투자환경 및 대북진출 관련 정보교환, 경험관련 애로의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가교역할 등을 수행할 '남북경협민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회는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경제4단체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 공기업 대표 7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3. 국제통상 진흥 및 민간경제교류 확대

3-1. 회원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 지원

(1) 경제사절단 파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자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기업 CEO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및 무역투자사절단을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아주지역,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중동지역, 칠레, 페루 등의 중남미지역, 스페인,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유럽지역에 총 14회 파견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통상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파트너로서 대통령 등 정부인사의 해외 순방시 통상현안과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대국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외교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전략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관합동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2) 통상·투자관련 세미나, 설명회, 간담회 개최

통상외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몽골 대통령 등을 초청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러시아, UAE, 사우디, 동유럽 등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투자환경 및 진출전략 정보제공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회원기업들이 해당국의 통상 및 경제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이하여 주한 중국대사 초청 특별강연회를 비롯해 중국 반독점법 특별세미나, 한중 양국간 투자활성화 방안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국진출 희망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2/14)

▲ 중국 사천성 투자설명회 (9/14)

(3) 무역거래 알선 및 정보제공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입찰 참여, 투자기회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한국기업과의 교역 및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는 국제통상정보서비스(<http://global.korcham.net>)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각국의 투자환경 및 경제동향정보와 국제통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국제통상정보서비스 홈페이지

II. 부문별 사업실적



국제무역거래시 발생하는 외국기업과의 상사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로종합지원센터내에 국제중재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국제무역분쟁관련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다.

3-2. 국제 민간경제협력 활성화

(1) 양국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 차원의 국가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말 현재 전세계 41개 국가의 상공회의소와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트남, 중국, 스페인, 사우디, 페루, 터키, 뉴질랜드 상의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투자 및 무역증진을 위해 필요한 상대국의 경제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긴밀한 협력체제가 더욱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인니 민관합동 경협TF, 한·베트남 민관합동 경협TF, 한·아제르

바이잔 민관합동 경협TF 등을 구성하여 양국의 통상현안과 상호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
▲
한중민간경제협력의회제
8차 합동회의(4/11)

▲
UN조달시장 설명회
(2/6)

(2) 다자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활동참여

세계 최대의 민간국제경제기구인 ICC에서 개최하는 제5차 WCC(World Chambers Congress)에 한국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 상공인들과의 교류확대 및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및 국제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ICC가 제정하는 각종 규칙 번역 및 해설서를 발간하여 회원기업들의 무역거래애로 해소를 지원하였다. 특히 UN 조달시장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국제조달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기업들이 국제기구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회원기업 경영지원

4-1. 교육 및 경영상담

회원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별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특화 교육분야인 세무·회계 부문에서는 58회의 교육이 실시되어 1,897명이 참가하였으며, 중소기업 CEO를 위해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과정'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전국 상공회의소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전화, 홈페이지, 대면접촉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고 있다. 지난해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실적은 법률부문 452건, 노무부문 446건 등 1,686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분야와 상담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특히 계약서 작성, 공장입지, 특허·기술, FTA 관세 등을 새로운 상담분야로 추가했다.

● 2007년 기업애로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법률	자금·금융	인사·노무	무역·투자	세무·회계	기타	합계
콜센터	285	102	313	118	196	63	1,077
홈페이지	67	40	81	25	39	62	314
상담실	100	30	52	24	29	60	295
계	452	172	446	167	264	185	1,686

4-2. 기업정보 DB 서비스

회원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에도 코참비즈 DB를 더욱 확충하였다. 34만개의 기업정보와 190만개의 상품정보는 물론, 비즈니스서비스(BS) 정보, 재무 정보, 거래정보, 채용정보 등의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비즈니스 정보를 One-stop으로 전달하고 있는 코참비즈는 54만 기업회원 및 개인회원에게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수집된 기업정보를 '2007년 기업체 총람'으로도 발간하여 회원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② 코참비즈 기업정보 DB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기업정보	345,905	317,841	28,064(8.8%)
상품정보	1,660,019	1,605,000	55,019(3.4%)
재무정보	15,843	14,456	1,387(9.6%)
채용정보	754,166	233,000	521,166(223.7%)

4-3. 온라인 경영·경제정보 제공

국내 최대의 비즈니스 포털을 지향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코참넷, www.korcham.net)를 통해 회원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홈페이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각종 세미나와 조사·연구보고서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통계, 정책정보, 국제통상정보, 경영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전년 대비 36% 증가한 607,946명이 코참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공회의소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코참넷 회원에 대해서 경제·정책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연간 50여회 발송하여 회원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기업경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 코참넷(대한상의 홈페이지) 회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6년	증 감
코참넷 회원	611,500	446,775	164,725(36.9%)
뉴스레터 발송대상 회원	264,579	228,112	36,467(16.0%)

4-4. 중소기업 경영정보화 지원

정보화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먼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경영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3,009개 기업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었고, 2,978개 기업에는 기업용 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IT인프라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설치된 'IT화 콜센터'에서는 전화상담

(3,752회), 현장지원(369회), CEO컨설팅(24회)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관련 애로를 적시에 해소해 주었으며, SCM 이용확산을 위해서 40개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도 시행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대·중소기업 상호간 지식공유를 통해 기업간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새로이 전개하였다.

4-5.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의 싱글PPM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하여 지도위원 43명이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33일을 지도해 지도품목의 납품불량률을 71.3%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품질인증 심사는 3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싱글PPM 품질혁신 소개, 품질인증 방법, 품질관련 각종 기법과 관련한 On-Line, Off-Line 교육을 총 174회에 걸쳐 연인원 34,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제13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 (5/2)

● 2007년 싱글PPM 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6년	증 감
On-Line 교육	29,375	26,675	2,700(10.1%)
Off-Line 교육	5,481	3,983	1,498(37.6%)

「제13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를 개최해 우수기업 10개, 유공자 97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품질혁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내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총 7회 실시하여 두산엔진, 도요타자동차, 아우디 등 국내·외 선진기업들을 방문하여 이들 기업의 품질혁신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게도 싱글PPM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정부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중소기업청이 주요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싱글PPM을 추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싱글PPM 품질인증서를 받았다.



▲ 품질혁신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 (1/31)

4-6. 무역증명발급

2007년도 무역인증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728,315건을 발급하였다. 이중에 일반원산지증명이 561,263건, 관세양허원산지증명이 27,111건, 기타 무역서류 인증이 132,868건, 서명등록이 5,504건, 까르네가 1,050건이며 '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은 519건이었다.

FTA 확산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해 웹인증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일반원산지 증명서 외에도 FTA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무역서류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07년 무역증명발급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원산지증명 (일반, 관세양허, FTA)	588,898	553,745	35,148(6.3%)
기타 무역증명	132,868	133,785	△917(△0.7%)
서명등록	5,504	6,984	△1,480(△21.2%)
ATA까르네	1,050	1,076	△26(△2.4%)
합 계	728,315	695,590	32,725(4.7%)

4-7.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각각 설립되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사업을 펼쳐온 상공회는 지난해에도 교육사업(638회, 56,582명), 상담사업(15,153명), 관내 기관장 초청간담회(163회) 등의 회원서비스를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회원수가 2006년 말 42,007개사에서 2007년 말 46,920개사로 11.7% 증가하였다.

아울러 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상공회별 특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하였다. 구로구상공회는 구청과 협력하여 구청 NT서버의 일부를 웹하드 공간으로 활용해 관내 기업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금천구상공회는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연세대 등 서울시내 연구중심대학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산·관·학 기술이전 설명회



▲ 기업애로지원센터 상담

를 개최하였다. 서초구상공회 등 9개 상공회에서는 기업홍보를 위한 우수제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였다.

기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관 협의체로 구성·설치된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였으며,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의 경영능력 향상과 재충전, 이업종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상공회 행사개최 실적

(단위: 건, 명)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교 육	638	56,582	596	39,596	42(7.1%)	16,986(42.9%)
간담회	700	7,535	537	6,664	163(30.4%)	871(13.1%)
제회의	376	9,986	312	9,288	64(20.5%)	698(7.5%)

5. 자격검정사업의 내실화

5-1. 2007년 자격검정 성과

전국 70개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검정사업의 시행종목 수는 2007년 말 현재 국가 기술자격 7개, 국가자격 1개, 국가공인자격 15개, 상의자격 9개로 총 32개 종목이며 2007년 전체 수험자 수는 2,586,832명이다. 또한 법무부 재소자 및 도서벽지(백령도, 울릉도) 거주자,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자 등을 위한 특별 수시검정을 14회 시행(14,459명)하는 등 검정사업의 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④ 2006년도 검정실적

(단위: 명)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국가기술자격	2,454,159	2,614,442	△160,283(△6.1%)
국가자격	73,999	66,809	7,190(10.7%)
국가공인자격	28,739	21,391	7,348(34.3%)
상의자격	29,935	18,079	11,858(65.5%)
합 계	2,586,832	2,720,721	△133,889(△4.9%)

II. 부문별 사업실적

회원기업에게는 한자 평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두산그룹, 대한항공 등 4개 업체에서 11,859명이 응시하였다. 수험자의 편의 증진과 상설검정 시행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설검정 시행지역을 총 33개 상의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총 상설검정 수검인원수는 전년대비 36.3% 증가한 1,515,354명이었다.

연도별 상설검정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험인원	279,991명	438,355명	812,687명	1,111,813명	1,515,354명
시행상의	11개	15개	21개	28개	33개

5-2. 검정제도 개선

(1)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검정시스템 개선

2007년에는 검정수험료 환불제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토록 개선하여 수험자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그 동안에는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온라인상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친 지난해부터는 인터넷 환불제를 본격 시행해 환불 요청자의 98%가 인터넷 환불을 신청하였다.

(2) 신규 종목 개발

지난해에는 한자검정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외 공신력을 제고시켰고, 중국, 대만,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와 교류가 많은 기업들에게 보다 품질 좋은 한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효율적인 검정관리

지방상의를 대상으로 제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검정 시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하는 한편, 검정관리 운영규칙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검정시행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및 공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6. 인력개발사업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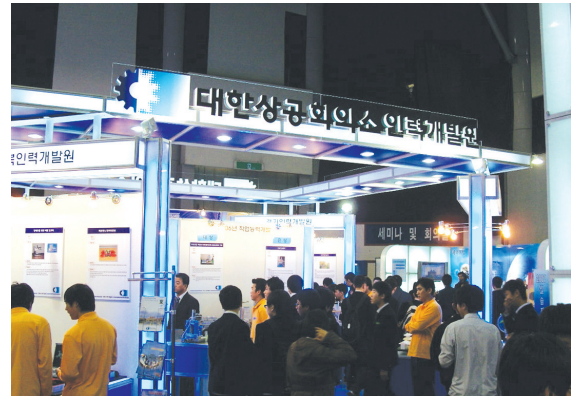
6-1.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인력 양성공급

대한상의회가 운영하는 부산 등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는 미취업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 4,022명, 중소기업 컨소시엄훈련 18,629명, 이리닝훈련 30,409명, 기타 직무능력향상훈련 2,986명 등 총 56,046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대상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방법의 다양화, 연중 및 수시모집 병행 등을 통하여 신청인원이 전년도 대비 45%p 증가(215% → 260%)하였고 100% 모집실적을 달성하였다.

양성훈련 수료자중 취업인원(수료후 3개월 기준)은 1,580명으로 군입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취업을 희망하는 수료생 전원이 취업하였으며, 수료자중 88.7%에 해당하는 1,591명이 전산응용가공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전기계측제어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한편,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여타 훈련기관과는 차별화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별 훈련생 밀착지도 등을 통해 2007년도 훈련생 중도탈락률을 7.2%(전년대비 1.4%p 감소)로 낮추었다.



▲ 2007 능력개발 JOB페스티벌 (11/30)

④ 훈련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양성훈련	3,727	3,728	△1(△0.0%)
기타훈련	46,273	46,924	△651(△1.4%)
합 계	50,000	50,652	△652(△1.3%)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4개 인력개발원에서는 정부,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사업을 실시하였다.

참여기업수는 3,453개이며 훈련인원은 목표인원(6,720명)보다 256%나 많은 17,210명으로 전년대비 1,501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문식 맞춤훈련 등 특화된 교육 훈련과정을 꾸준히 개발하였고 부산, 인천인력개발원에서는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해 훈련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에 따른 것이다.

II. 부문별 사업실적

또한 지역업체 니즈에 부합하고자 인천인력개발원과 인근 지역상업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공급 및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사업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참여기업수	4,061	3,996	65(1.6%)
훈련 인원	17,210	13,757	3,453(25.1%)

훈련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위주의 교육훈련 방식과는 별도로 이러닝 훈련도 실시하였다.

이러닝 훈련은 전문기술 보유업체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이 산학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주 위탁과정 81개, 일반과정 103개, 자율학습 무료교육과정 72개 등을 운영하여 총 30,409명이 수강하였다.

② 이러닝 훈련사업 실적

(단위 : 개, 명)

구 분	사업주 위탁	일 반	프로젝트형	자율학습	합 계
과 정 수	81	103	4	72	260
수강인원	2,157	144	23,930	4,178	30,409

6-2. 직업훈련인프라 강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지역별 산업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장형하드웨어, 건축시공 등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훈련지종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교수능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위탁연수 220명, 기업체 현장연수 163명, 집합연수 80명 등 총 548명의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훈련생의 학습이해 증진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새로이 산업현장 수요중심의 매체 개발/종합과제 47점, 실물모형/모델 25점 등을 개발,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6-3.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사업 추진

대한상의는 다년간 취득한 직업훈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훈련기법 개발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대한상의의 우수한 기술인력 개발경험과 훈련 노하우 전수를 위해 개발도상국 교사 및 직업훈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7개 과정에 85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콩고, 방글라데시 등 25개국에 직업훈련 전문가 37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대한상의가 지닌 직업훈련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또한 베트남·미얀마·요르단·네팔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훈련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보급, 연수생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등을 시행하였다. 이밖에도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촉진 및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25명의 인력개발원 수료생을 요코하마, 가와사키 상의 관내 12개 기업체에 파견, 5개월간 연수를 실시하였다.

7. 유통물류사업 확대 발전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1991년 대한상의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국제표준상품식별코드(바코드)를 보급하여 왔으며, 현재 차세대 바코드인 RFID/EPC(무선인식기술) 산업화 추진, 전자카탈로그 및 PDS 등의 유통물류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유통물류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1. 2007 GS1 서울총회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표준을 선도하는 GS1(Global Standards 1) 총회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73개국 GS1 회원기관 및 글로벌기업 대표 등 313명이 참석, 무선인식(RFID) 기술을 비롯한 미래 유통물류 분야의 기술표준을 논의하였다. GS1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산업계에 글로벌 표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선진기업의 표준 활용사례 발표를 통해 표준 사용의 효익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제고시켰다.



▲
▲ 2007년 GS1 서울총회 (5/21)

▲
RFID 리더스그룹 회의 (5/25)

7-2. RFID/EPC 보급기반 구축

진흥원은 RFID/EPC 국제표준 보급을 전담하는 국내유일의 기관으로 지난해에는 RFID 성능 시험평가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RFID 국가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여 산업계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RFID/EPC 국제컨퍼런스 및 리더스그룹회의를 개최하여 RFID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또한 ISO 표준기반의 행정용 RFID 식별코드 체계인 KKR코드 관리 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기관 RFID 식별코드 관리방안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KKR 코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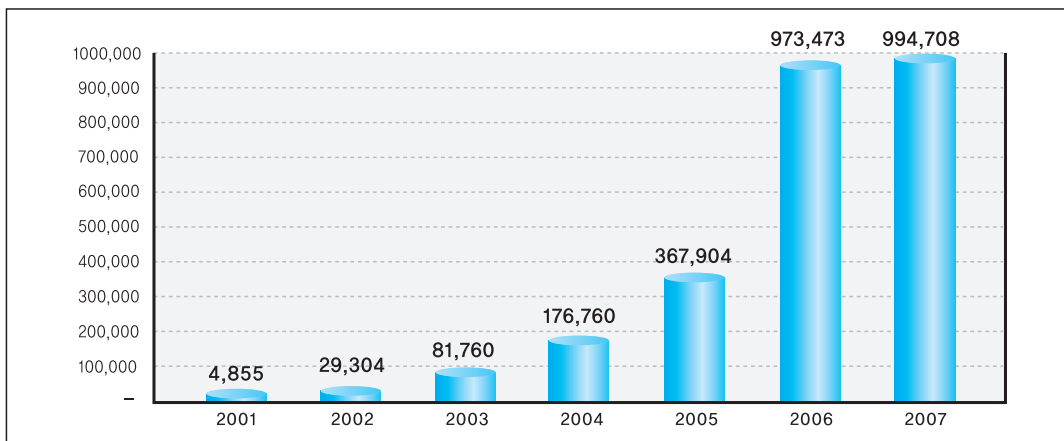
7-3. 코리안넷(상품 카탈로그 DB) 활성화

‘코리안넷’ 사업은 제조업체가 자사의 상품 및 기업정보를 코리안넷에 단 한번 입력함으로써 모든 유통업체들이 관련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유통시스템 고도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04년 본격 운영 이후 현재 99만여개의 상품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국내 최대 전자카탈로그 DB로 자리매김하였다.

농협유통이 상품 이미지 정보 활용을 위해 코리안넷 등록을 의무화한데 이어, 신세계이마트와 의 실시간 데이터동기화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추진된 이랜드리테일과의 실시간 데이터동기화시스템 구축은 2008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③ 코리안넷 상품정보 등록현황

(단위 : 개)



KAN 분류	식품	일용품	문화용품	내구소비재	의류, 신변잡화 스포츠용품	기타	합계
상품 수	152,190	199,936	89,523	45,756	500,338	6,965	994,708

7-4. 유통물류정책 지원 및 정보제공

PDS(POS Data Service)사업은 유통업체의 단품별 POS(Point-of-sales)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동향, 시장동향 등의 분석정보를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전략 수립 및 경영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중장기 사업비전 수립을 위한 'PDS사업 활성화 전략 컨설팅'을 완료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말 현재 32개사 450개 점포가 참여하였다.

일본에서 개최된 제13회 아태소매업자대회에 350여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미래형 유통산업과 글로벌 최신 유통동향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9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4회 대회를 홍보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1,651명에게 선진 경영기법 전수 및 의식개혁 교육, 성공사례 연구 등의 유통선진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밖에도 유통물류산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3개 업체에 유통물류 자동화 시설 및 정보화 시설 관련 유통물류합리화 정책자금 2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통분야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자료, 통계 및 관련법규 등 국내외 유통산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통정보 DB서비스'를 제공하였다.(www.retaildb.or.kr)

8.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경영 지원

대한상의회가 2005년 5월 설립한 지속가능경영원은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원은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당면한 환경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정부건의 및 관련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8-1.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

2007년에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해당사자간 상생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환경단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성과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 지속가능경영원 개원2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10/10)

II. 부문별 사업실적



▲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위한 협약식 (5/29)

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문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원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표준개정 자문회의 등도 개최하였다.

그 밖에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 포럼을 매월 개최하였으며, 동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8-2. 환경경영 지원

(1)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지속가능경영원은 환경관련법 제·개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5단체 공동 건의(연2회),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연2회), 환경부 규제효과TF 참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시키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환경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법령해설집을 발간·배포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관련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 기후변화 및 국제무역 환경규제에 대응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국내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동향 및 시사점'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청정개발체제(CDM)시장의 미래와 기업 참여 전략', '포스트교토체제와 한국 산업계의 대응방안', '국내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사례' 등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중국 등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유해물질 환경규제 대응 실무가이드',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제품 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EU환경규제 대응 온라인 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일조하였다.